

- 주요 뉴스: 미국 주요 제조업 지표, 전반적으로 긍정적. 일부에서는 경기불안 우려 제기
 - ECB 통화위원, 인플레이션 제어 위해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
 - 유로존 소매판매 및 투자심리, 전월비 부진. 경기 회복세가 약하다는 신호
 - 중국 시진핑 주석, 미국의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노력이 중요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 의장 의회 증언 및 2월 고용보고서 관련 경계감 등이 영향

주가 상승[+0.1%], 달러화 하락 [-0.2%], 금리 상승 [+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장초반 상승 폭 축소
유로 Stoxx600지수는 ECB 인사들의 금리인상 주장으로 하락 전환
 - 환율: 달러화지수는 3월 FOMC에서의 0.25%p 인상 가능성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0.4% 절상, 약보합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제조업 경기 회복 기대 등이 반영
독일은 ECB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3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297.9원, +1원) 0.2% 상승, 한국 CDS 보합

		3/6일	3/3일	전일대비			3/6일	3/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048.4	4,045.6	0.07%	국채 금리 10y	미국	3.96%	3.95%	1bp
	유럽	464.18	464.26	-0.02%		독일	2.75%	2.72%	3bp
	중국	3,322.0	3,328.4	-0.19%		영국	3.87%	3.85%	2bp
	일본	28,238	27,927	1.11%		CDS 5y	한국	41bp	41bp
	한국	2,462.6	2,432.1	1.26%	위험 지표	중국	65bp	64bp	-1bp
	달러지수	104.27	104.52	-0.24%		EMBI+	-	390	-
환율	유로화	1.0681	1.0635	0.43%		VIX	18.61	18.49	0.65%
	엔화	135.93	135.87	-0.04%		WTI유	80.46	79.68	0.98%
	위안화	6.9318	6.9043	-0.40%	원자재	구리	408.4	407.8	0.15%
	원화	1,296.9	1,301.6	0.36%		금	1,846.9	1,856.5	-0.5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주요 제조업 지표, 전반적으로 긍정적. 일부에서는 경기불안 우려 제기

- 뉴욕 연은이 발표한 2월 글로벌 공급망지수는 -0.26을 기록, 전월(0.94) 대비 하락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치. 해당 지수가 마이너스를 나타냈는데, 이는 공급망 압력이 1998년 이후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다는 의미
- 1월 공장수주의 경우 전월비 1.6% 줄어 작년 12월(1.7%)에 비해 부진. 하지만 이는 민간항공 부문의 급감에 따른 결과이며, 공장기계 및 이외의 부문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제조업 경기 회복 기대가 증가
- 하지만 연준의 통화긴축 장기화 가능성 및 이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제기. JPMorgan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경미한 수준의 경기 침체가 가능하다면서도 연준의 지속적인 추가 긴축이 예상된다고 평가.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과의 관계 등이 큰 우려사항이라고 언급
- JPMorgan의 Mislav Matejka 스트래티지스트는 하반기 기업활동의 둔화가 예상되며 연준 역시 상당 기간 금리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현 상황에서 주가가 추가 상승하면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하며, 향후 주가는 1/4분기까지 상승하고 이후에는 하락 전환할 수 있다고 전망
- Morgan Stanley의 Michael Wilson 애널리스트 역시 중장기적으로 경제 여건 악화 및 기업실적 부진 등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피력. 이에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설문조사, 시민들의 연준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

- 조사업체 Lake Research Partners에 따르면, 연준이 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42%를 기록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32%)를 크게 상회. 26%는 의견 제시를 거절
- 한편 금리인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56%.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화정책에 반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

■ ECB 통화위원,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

- 핀란드 중앙은행의 렌 총재는 인플레이션 수준을 떨어뜨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언. 아울러 ECB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금리인상과 지속적인 통화긴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홀츠먼 총재는 금리를 향후 4번의 회의에서 0.50%p씩 올려야 한다고 주장. 반면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센테노 총재는 ECB는 3월 통화정책회의 이후에는 경제지표 등을 따라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

■ 유로존 소매판매 및 투자심리, 전월비 부진. 경기 회복세가 약하다는 신호

- 1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0.3% 증가하여 예상치(1.0%) 하회. 전년동월비 기준으로는 2.3% 감소. 이번 결과는 소비가 개선되고 있으나 고물가 등으로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미(ING의 Bert Colijn)
- 3월 Sentix 투자자신뢰 역시 -11.0을 기록하여 전월(-8.0) 대비 낮은 수준. 하위 구성요소 가운데 현재지수는 5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기대지수는 하락(-6.0→-13.0). 전문가들은 경기회복 관련 부정적 심리가 향후 실제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금리상승과 통화공급 감소 여건은 경제에 부정적 요인이라고 평가

■ 중국 시진핑 주석, 미국의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노력이 필요

- 제조업은 중국 경제의 큰 기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자립, 중소기업 체질 개선, 혁신 촉진 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우리 스스로가 모국을 구해야 하며, 다른 국가들을 의존할 수 없다고 첨언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금년 성장률 목표 달성을 확신

- 자오 첸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활동 재개 등의 영향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소비를 촉진시키면서 연초 강력한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고 진단. 5%의 성장률 목표는 최근 경기 모멘텀 수준에 부합하며, 이는 경제의 질적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3/7 현지시각 기준)

- 연준 파월 의장 증언, 호주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중국 2월 수출입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 최근의 경기회복 신호로 명확한 통화정책 결정이 어려운 상황 - WSJ

(Why the Recession Is Always Six Months Away)

- 그 동안 전문가들은 급격한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23년 중반 경기침체를 예상. 하지만 최근 수요 우위의 노동시장과 소비자 지출 반등이 이어지면서 경기회복 기대가 증가.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속도를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
- 이러한 상황은 최근의 경제 여건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 첫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으로 가계 및 기업의 재무 상태는 양호. 둘째, 원자재 및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 셋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비 대상의 중심이 제조업 제품에서 서비스로 이동
- 연준은 인플레이션 고착화 방지를 위한 정책 대응이 요구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금리인상에 따른 불필요한 경제적 고통을 예방할 필요

■ 금융시장의 신용위험 과소평가 신호, 양호한 가계 재무여건 등을 반영 - 블룸버그

(The Hidden Message in Credit Spreads)

-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에도 하이일드 채권의 스프레드가 하락. 또한 증시에서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주가 차별화가 크지 않은 편. 이에 일부에서는 신용위험의 과소평가를 주장
-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시기와 비교하여 가계의 재무상태가 양호한 상황임을 의미. 금융위기 당시에는 모기지 대출, 자동차 대출 등 가계 부채가 문제였지만 최근에는 초과저축 정도와 소진 시점 등이 주요 이슈
- 또한 최근 통화긴축에도 통화량이 여전히 장기 추세를 상회하는 등 아직까지 민간 부문의 부채 상환 어려움은 제한적

■ 미국과 유럽의 기업, 신용강등 우려 등으로 부채 확대에 소극적 - Financial Times

(Fear of ratings downgrades puts companies off debt-driven deals)

- 연준이 금리인상과 양적긴축에 나선 이후 기업들은 사업 확장 혹은 타기업 인수 시 부채 확대를 통한 자금조달에 신중. 이는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금융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
- 한편 불확실한 경제 전망 역시 기업의 신중한 자금조달 선택을 유도. 이에 일부 기업은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조달 비용 축소를 기대

■ 유럽의 주가 상승, 대내외 여건 고려 시 지속 여부는 불확실 - Financial Times

(Beware the European optimism trap)

- 금년 유럽 주요 주가지수는 두 자리 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여타 선진국 시장보다 양호한 모습.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분명
- 첫째, 중국 경제활동 재개가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회적 효과에 그칠 수 있기 때문. 둘째, 고물가 지속으로 ECB의 통화긴축이 강화될 가능성. 양적긴축 역시 이번 달부터 시작될 예정
- 셋째, 지난 겨울 에너지 부족이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았지만 천연가스 가격 불확실성은 상시적 불안 요인. 넷째, 유럽의 재정건전성 개선 논의는 '20년 이후 잠정 중단되었으나 '24년부터 가속화될 가능성

■ 연준의 통화정책, 제조업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 WSJ

(Fed's Rate Moves Put Manufacturing Sector at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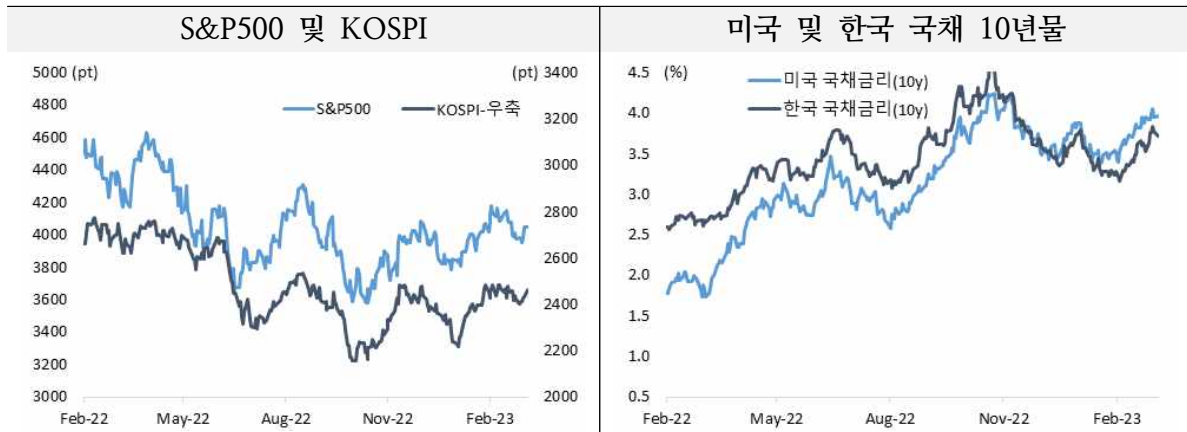
■ 미국 은행권, 예금금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 - 블룸버그

(US Banks Are Finally Being Forced to Raise Rates on Deposits)

■ 미국의 주택경기 회복세, 봄철이 시작되면서 약화될 가능성 - WSJ

(Housing Market Momentum Stalls as Critical Spring Season Approache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